

미국의 디지털 방송전환에 대한 최근동향

이 은 민*

1. 개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은 1월 8일 아직 800만 가구가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09년 2월 17일로 예정된 미국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정을 연기할 것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05년부터 디지털방송 전환을 계획 및 준비해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업계, 전자업계 등은 디지털전환 시기의 연기가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기를 반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국대상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둔 미국에서 시행을 한 달을 앞두고 연기 논란이 대두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12년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미국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준비과정

미국은 '05년 디지털 방송전환과 공공안전 강화법(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을 제정하여 '09년 2월 17일까지 전국의 모든 방송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임연구원, (02)570-4314, micha76@kisdi.re.kr

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청자들은 2월 18일부터 아날로그 TV로 방송을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디지털 TV 수상기와 아날로그TV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수신기(컨버터) 중 하나를 구매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홍보와 DTV 수신기 쿠폰제도 및 디지털 전환이후 1달간 공공안전 및 디지털전환 관련방송을 아날로그로 송출하는 법안 등을 준비해왔다.

먼저 미국 상무부 통신정보관리청(NITA¹⁾)은 소비자들에게 디지털TV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하고, TV 컨버터 쿠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해주는 수신기(컨버터)를 구매할 경우 가구당 최대 40달러짜리 쿠폰 2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TV컨버터 가격이 40~80달러로 형성되어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대상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보조금의 성격으로 보인다. 한편 FCC는 '08년 3월 1일부터 출시, 제조되는 모든 TV에 의무적으로 ATSC 디지털튜너를 장착하여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TV로의 교체수요를 유도했다.

한편 DTV전환과 관련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지진, 산불, 해일, 열차사고 등 갑작스러운 재해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정보를 시청자가 전달받지 못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혼란에 대비하여 정부는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된 2월 18일 이후에도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공공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아날로그 TV로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08년 12월에 美의회가 승인한 Analog Nightlight²⁾ 법안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디지털전환이 이루어지는 '09년 2월 18일 이후 30일간 FCC가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공안전정보와 디지털TV 전환정보를 아날로그방송서비스로 제공해야하며 이는 기타 다른 법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이다.³⁾ 이 법안은 '08년 11월, 12월에 각각

1)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2) Short-term Analog Flash and Emergency Readiness

상·하원을 통과하여 31일에 FCC의 신규 규칙(rule)으로 고지(NPRM⁴⁾)되었고, '09년 1월 5일~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월 15일에 실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라 FCC는 2월 18일 이후에 아날로그 방송으로 공공안전이나 긴급상황 등을 위해 DTV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적 홍보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3. 디지털방송 전환시기 연기논란의 배경

주요 외신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의회에 디지털방송 전환 시기 연기를 요청했으며, 미국 정부의 관련예산부족으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컨버터 보급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등 준비미흡을 지적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일련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불어진 것은 DTV 컨버터 보급계획이 예산부족사태로 인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방송 조기전환을 위해 13.4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하여 40달러짜리 디지털 컨버터 구매쿠폰을 지급해왔으나, '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기침체로 DTV 수상기 수요가 감소하고 쿠폰이 적용되는 컨버터 수요가 크게 확대되어 쿠폰신청건수가 당초 예산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미 1월 5일 현재 쿠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객이 10만명을 넘었고, 미디어분석기관인 닐슨(Nielsen Research) 조사에 따르면 컨버터 박스구입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8월 25%에서 11월 38%로 급격히 증가했다.⁵⁾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컨버터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쿠폰 발급을 담당하던 정보통신관리청(NTIA)는 기존 발급된 쿠폰 중 사용시한이 지나 무효화 된 분량만큼 쿠폰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도록 의회에 추가예산 지원을

3) 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10-3663

4)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은 FCC의 규칙제정절차 중 하나로 새롭게 제정될 예정으로 있는 FCC의 규칙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규칙변경이나 새로운 의견 등 다양한 의사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아이뉴스24(2009. 1. 6)

희망하고 있고, 오바마 인수팀도 새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가 예산을 포함하는 등 이에 대응하고 있다.

4. 결 어

만일 인수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05년 제정된 디지털전환 법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1월 13일 새로운 FCC의장으로 오바마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발탁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전환 관련논의 변화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2년 12월 31일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12년은 4월 총선, 8월 런던올림픽, 12월 대선이라는 국가적 관심사가 있어 어느때보다도 방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디지털방송 전환기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순조로운 디지털 방송전환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 체계적인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금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한번 강조된다.

참고자료

FCC, “Media Bureau announces comment and reply comment dates for the “Analog Nightlight” NPRM: January 5 and January 8, 2009”, MB Docket No. 08-255, Public Notice.

《아이뉴스》, “美디지털TV전환정책, 경기한파 직격탄”, 2009. 1. 6.

《Wall Street Journal》, “Obama Pushes for Digital-TV Delay”, 2009. 1. 8.

GogTrack.us(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10-3663)